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Love To Receive



1 이 세상을 주인이 있습니다.

땅, 집, 자동차, 시계 등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2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맑은 물컵 속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컵 속의 물은 까맣게 변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죄로 물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3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강에 다리가 없으면 한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4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천국 가는 길)

피가 부족한 사람이 수혈을 거부하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 오는데 열지 않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세움교회에서 천국소망과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복음이 심겨진 교회** 적용이 구체적인 설교 / 양육을 통한 제자화 / 지속적 거리, 방문전도 / 단기, 장기선교사 파송
- 행복이 피어나는 교회** 현금 부담 없는 교회 / 힘든 성도 돕는 교회 / 봉사 부담 없는 교회 / 소그룹이 강한 교회
- 가정을 세우는 교회** 가정복음화 돕는 교회 / 각종 가정세미나 개최 / 방과후동반, 학교 실시 / 복합실버타운 건립

찾아오시는 길

Map



※ 10년 타기 정비센터 구의점(현대카드센터) 2층

예배 & 모임

Worship & Gathering

예배 & 기도회		교육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2:00	유초등부예배	주일오후 03: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05:30	청년부 모임	주일오후 03:00
수요기도회	오후 08:00	성경통독세미나	매 주 수요일
금요기도회	오후 08:00	초등부토모모임	매 월 토요일
장년부구역예배	구역별로~	중고등부일동학교	매 주 토요일

2020년 표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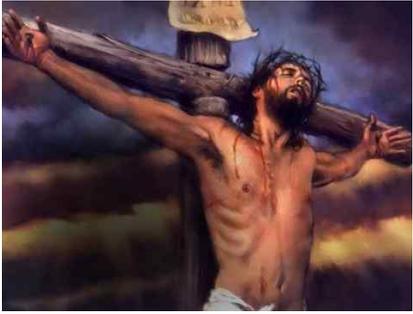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제 7 권 11 호 2020년 3월 15일



담당목사 : 박희재 (010-8759-6447) 서울 광진구 자양로 189, 대덕빌딩 2층 (구의동) TEL. 070-8955-6447 FAX. 02) 456-6447 www.jooseum.org

www.jooseum.org



오늘의 말씀

다 이루는 삶

요한복음 19:28~30

박희재 목사

1.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성, 성공,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인 이 상황이 어떻게 완성, 성공, 승리를 한,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고통, 모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완성, 성공,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우리의 삶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 망해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공이신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2. 다 이루신 예수님

첫 번째는 12살 예수님이 명절날 성전방문 후 부모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서 율법선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발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타고난 모습과 환경 속에서 이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전파의 사명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위독할 때, 자신의 감정, 사람들의 요청, 비난을 뒤로 하고 4일이나 늦게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셨기에 다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는 자

로마서 8:28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모습과 상황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한눈 팔지 않고 그 길을 걸으며, 과정이 아닌 결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지도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삶이 암울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스라엘 육군의 훈련병들을 4조로 나누어 완전군장을 하고 20km를 행군시키는데, 1조에는 행군할 때 도착거리를 미리 예고하고 5km마다 앞으로 얼마의 거리가 남았다고 알려주었다. 2조에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만 말했다. 3조에는 “15km를 행군한다”고 말했다가 14km지점에서 “20km를 행군한다”고 변경 통지를 하였다. 4조에는 “25km를 행군하겠다”고 말했다가 14km지점에서 “20km행군으로 오늘의 행군을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실험에 의해 브리즈니츠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20km라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동시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행군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가 가장 사기가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예상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예상거리보다 더 길게 행군한 3조보다 훨씬 사기도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브리즈니츠 박사는 “어려움이나 편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라고 분석했다

-무익한 종 박희재 목사-

3월 캠페인 “코로나19 진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수요, 금요기도회 한 주간 쉽니다. 성도, 국가를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건축

성전건축 작성현금 계좌 국민 051001-04-173934 주세움교회

기도제목

[코로나19사태]의 조속한 진정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성전건축 / 성도직장, 사업장 / 정치,경제,통일 / 동성애, 이슬람, 불평등법 금지

해외 : 김대영(미국), 최은영(스위스), 김경환(호주)

군대 : 정연균(부산), 조민기(논산), 김지훈(철원), 시정보(인제)

2020 성경암송 11주차 [소망-3]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00 사회 박희재 목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배 부름 -----시17:6~7----- 다같이

※성시교독 -----11번-----인도자

※신앙 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 찬송 -----29장-----다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죄의 고백 -----다같이

사회 선언 -----인도자

감사 찬송 -----325장----- 다같이

대표 기도 -----박희재 목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봉독 ----요 19:28~30---- 다같이

설 교 ----**다 이루는 삶**---박희재목사

응답 찬송 -----546장-----다같이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헌 금 -----다같이

광고 -----인도자

※마침 찬송 ---우릴 사용하소서---다같이

※강복 선언 -----인도자

※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주일 오후예배 (오후 2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수요 기도회 (오후 8:0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금요 기도회 (오후 8:30)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쉽니다

다음주 봉사자

오전예배기도 김문옥 장로
오후예배기도 김진순 권사
식사당번 여성 7구역
03월 안내 김문옥, 신종남, 유미라
03월 주차 시삼섭, 조성만
03월 헌금 김문옥, 김종석, 소속이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박희재 · 전도사 곽정훈 · 장로 김문옥(시무), 김동천(은퇴)
· 반 주 정연지, 정은미, 강유미, 신혜진

주세움 구역예배

찬송 508장 대표기도 말씀 바울, 성령의 파트너(행20:17~35) 찬송 502장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직접 사역하지 않으시고 사도바울을 들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파트너로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1. 목숨을 다해 충성한 바울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는 안디옥교회에서 성령님에 의해 부름 받은 후 자신의 모든 삶을 선교에 헌신했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기 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사도바울은 사명을 위해 살았고 사명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각오를 가진 사람을 파트너로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 염려를 주님께 맡긴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바울은 자신보다 교회를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세 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행여라도 이단이나 핍박이 이제 막 세워진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해치지 않을까 염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면 더 많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정과 직장, 개인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있는 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돌보심을 믿고 내 주변을 주님께 맡길 때 바울처럼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앙과 삶이 모범이 되었던 바울

바울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신앙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영향이 큰 만큼 그에 대한 반대와 핍박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가 한 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바울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었고 모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해와 반대를 이겼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과 삶을 갖춘 사람을 성령은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徐侗徐

1.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도바울의 모습 중에서 나에게 큰 도전이 되는 점은 무엇이고 왜입니까?
3.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더 해야 할까요?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아·유치부	합계
03.01	29/70명	10/35명	05/6명	03/10명	01/5명	48/127명
03.08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	--	--	--	--	--	--	--

구역	구역장	부구역장	재적	출석	성경읽기	기도회참석	전도대상자	구역 헌금
남성 1	김동천	정광주	10명					
남성 2	김문옥	김용덕	11명					
남성 3	최규범	신현철	6명					
여성 1	박영란	권태분	5명					
여성 2	김진순	김순덕	6명					
여성 3	박미숙	신수진	4명					
여성 4	노연순	이서은	10명					
여성 5	신종남	조미선	6명					
여성 6	양경숙	소숙이	4명					
여성 7	강유미	김명옥	6명					
합계	10명	10명	68명					

- 주일예배 전 운행 10:00(면목동) ▶ 10:20(노론산시장) ▶ 10:23(신양초) ▶ 10:25(동자초) ▶ 10:30(성자초) ▶ 10:35(구청 앞)
- 주일예배 후 운행 오후 3시 교회 출발
- 새벽기도회 운행 05:13(신자초) ▶ 05:16(CU앞) ▶ 05:18(성자초) ▶ 05:22(구청 앞) ▶ 05:25(교회)
-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운행 모임이 끝난 후 차량 운행 합니다.
- 해외선교 최원근 선교사(동아프리카), 백현두 선교사(필리핀 보홀섬)
- 국내후원 정영균목사(십자가의교회), 송현호목사(푸른잔디교회) · 기관후원 극동방송국, 이단대책연구소(고신)